

110 학년도 1 학기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 (9)

주제: 일본대만교류협회와 현재 臺日관계

중국문화대학교 110 학년도 제 9 회 Eurasia 기금회 국제 세미나에 일본대만교류협회의(Japan-Taiwan Exchange Association) 신문문화부 村嶋郁代 부장을 특별 초청하여 ‘일본대만교류협회와 현재 臺日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村嶋部長의 학력과 경력은 상당히 풍부하며 중국과 대만에서 유학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이수하고 2003 년 졸업후 일본 외교부에서 일하게 된다. 국제정보부문, 아시아 태평양 중국몽고 제 2 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전략, 종합외교정책 전략 우주실, 상해 총영사관, 일본대만교류협회 타이베이사무소 등 여러 부문에서 경력을 쌓았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은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村嶋部長의 멋진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외교정책우주실 경력

村嶋部長은 우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반인들은 우주가 우리 일상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공위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래에 만약 어떤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하고, 적대국가의 인공위성을 공격하여 인공위성의 기능을 단절시킨다면 전쟁을 아주 쉽게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 때문에 인공위성을 보호하는 것은 외교 정책상 아주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村嶋部長의 학생들에 대한 의문과 기대

村嶋部長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미래에 대만과 일본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미래는 또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라고 하였다. 村嶋部長은 스티브 잡스의 명언 중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d to do early in life.’(내가 운이 좋았던 것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찍 찾았어요.)를 인용하면서 학생들

이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찾기를 격려하였다.

외교관 업무

1952년 일본과 대만 수교 후 일본 대사관을 설립하였으나 1972년 대만과 일본을 단교하게 되면서 일본대만교류협회를 설립하게 된다. 일본대만교류협회는 동경본부, 타이베이사무소, 까오시옹사무소로 총 3개의 사무소로 나누어져 있다. 설립 목표는 ‘知台家’(일본 관련 업무)와 ‘知日家’(대만 교류 업무)로 나누어져 있다. 강의 중 村嶋部長은 일본과 대만의 상호 인식 조사에서 臺日관계는 상당히 좋다고 하였다. 가령 대만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상을 살펴보면 대만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59%에 달하며 일본에 대한 친밀감은 70%에 달한다. 일본에 여행을 가고 싶은 비율은 심지어 90%에 달한다. 이와 반대로 일본인의 대만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가? 대만에 대한 친밀감은 78%에 달한다. 臺日관계의 우호성 75%, 대만에 대한 신뢰도는 63%에 달한다.

臺日 간 교류

일본과 대만 간의 왕래하고 있는 신분과 목적을 살펴보면 유학생, 장기업무, 워킹홀리데이, 교육, 여행 등 아주 다양하다. 일본과 대만의 도시들은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민간 왕래도 아주 활발하다. 무역관계에서도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은 직접적 일본 투자를 선언하였으며 일본 정부도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臺日관계의 친밀도는 나타내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0년 전 311 대지진에 대만은 일본에게 200억 엔화에 달하는 기부금을 전달하였으며 이는 전세계 1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본인은 대만의 일본에 대한 지원을 잊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 발생시 대만은 일본에 방역 마스크를 기부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AZ 백신으로 이를 보답하였고 이러한 국가간의 사심 없는 헌신은 臺日관계가 얼마나 우호적인가를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臺日도시와 미디어 사이에 ‘臺日 우정 101 점등 행사’, ‘우정 백신’, ‘대만 파인애플 구매’, ‘원산호텔의 LOVE 臺日 점등 행사’, ‘동계 올림픽 대만 응원’등의 광고안 등은 臺日간의 우호적 관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Q&A 시간

村嶋部長은 강연이 끝나고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과 교류하였다. ‘일본과 대만은 정식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은 할 수 없는가요?’에 대한 질문에 村嶋部長은 ‘사실 사람과 사람은 관계는 정과 감정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인은 사실 대만을 아주 좋아한다. 수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대만과 일본 간의 우의는 수교를 맺지 않더라도 좋은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한 학생은 ‘강의 중에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63%면 낮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의에 대해서 ‘언론 NPO 2019’에 의한 데이터를 통해서 중국과 비교한다면 대만의 63%은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하였다. 마지막 학생 질문 중 ‘방사능 오염 물질 식품의 대만 수입에 대한 일본대만교류협회는 무엇을 하셨나요?’라는 질의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 물질 식품(核食)’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일본인들은 매일 이러한 식품들을 먹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한국도 일본 식품을 금지시키고 있다라고 하였다. 일본은 실제 방사능 오염 지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 데이터를 교류협회의 사이트에서 일반 민중들이 참고하실 수 있다고 하였다.

(웹사이트 :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원고 : 黃金堂 일본어과 부교수)

번역: 장민자(張珉慈)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